

광주소방, 22~26일 '부처님 오신날' 특별경계근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소방대원들이 전통사찰에서 화재 예방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연등·촛불 사용 증가에 화재 예방 총력

소방인력 2884명·장비 281대 투입해 안전관리 강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5월24일)을 맞아 22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화재 예방 및 신속 재난대응을 위해 '사찰 주변 특별경계근무'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봉축 행사와 연등 설치 등으로 사찰 방문객이 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 예방 활동과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광주소방은 특별경계근무 기간 소방공무원 1637명과 의용소방대원 1247명 등 총 2884명의 인력과 소방장비 281대를 투입해 전방위 안전관리에 나선다.

주요 추진 사항은 ▲중심사·무각사·원효사 등 주요 사찰 21개소 소방력 근접 배치 ▲전통사찰 및 산림 인접 지역 127개소 기동순찰 실시 ▲관서장 중심 현장 지휘체계 강화 ▲재난 상황 발생 시 119종합상황실 접수대 확대 운영(13대→최대

35대) 등이다.

광주소방은 또 안전한 봉축행사 운영을 위해 22일까지 약사사·문빈정사·원각사·증심사·원효사·신광사 등 전통사찰 6곳에 대해 화재안전조사 및 현장 지도·점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연등과 촛불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계자와 방문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24시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봉축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주간에 총 2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봉축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사찰과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전통사찰의 경우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예방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소방당국은 연등 전기배선과 촛불 사용 구역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주요 사찰 주변에 소방차량과 구급대를 전진 배치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에는 현장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해 혼잡 상황 관리에도 나선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순찰 활동과 함께 화재 예방 홍보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돕는다.

광주소방은 관계자들에게 화기 취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문객들에게도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이나 화기사용을 삼가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영 기자

현대차그룹,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6' 참가

현대차그룹은 5월 19일(화)일부터 21일(목)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호이(AHOY)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6(World Hydrogen 2026 Summit & Exhibition)'에 참가해 수소 생태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은 모빌리티, 생산, 인프라, 규제, 투자 등 수소 관련 주요 안건 및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투자·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 수소 산업 박람회로, 'Summit(회담)'과 'Exhibition(전시)'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6에는 100여 개국 정부 관계자 및 500여 개 참가 기업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대차그룹은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6' 한국관에 수소 브랜드이자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O'를 중심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목업 ▲디올 뉴 넥소(The all-new NEXO) 차량 등을 전시했다. 디올 뉴 넥소는 최고출력 150Kw모터가 탑재돼 0km/h부터 100km/h까지 7.8초의 가속 성능을 갖췄으며, 국내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72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현대차의 차세대 승용 수소 전기차로 올해 유럽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은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6 회담 부문에도 참여

해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검증된 솔루션 제공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최근 수소가 탈탄소화 수단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한 에너지 동력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수소 생태계 가속화를 위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일관된 정책과 글로벌 표준 확립이 조속히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창립 멤버이자 공동 의장사인 현대차그룹은 20일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6' 행사이자 수소위가 주관하는 IHTF(International Hydrogen Trade Forum) 회의에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글로벌 수소 시장 주도권 확보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글로벌 수소 시장 주도권 확보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기영 기자

내일이 밝는 기회도시 광주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보장기간 2026.1.20. ~ 2027.1.19.(1년)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가입

보험료 부담 없이, 타 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장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현역병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지급방식

- 1 상해보상
- 2 보험사청구
- 3 보상여부 검토
- 4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상담 및 청구

상담(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전화번호 070-4693-1655, 070-8892-3786
☎ 서류접수(FAX) 070-4758-8556

문의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062)613-2723

광주광역시 GWANGJU CITY